



코리아벤처의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글 / 전 하 진 (INKE 의장)

INKE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NKE 의장을 맡고 있는 전하진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GDP규모 세계 11위 국가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도 세계 제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최빈국에서 빠른 성장을 한 유일한 나라인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문득 우리나라 GDP가 미국과 중국, 일본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세계 시장 속에서 우리를 조망하는 내용은 찾기가 힘들더군요. 결국 한 외국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GDP는 전세계 GDP 43.7조달러의 1.8%인 8000억달러, 인터넷 사용자는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 6억명 중에 4%,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은 세계 인구의 1%에 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98% 이상의 세계경제가 우리와는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어 중국, 일본 순이었고 인도의 GDP가 4위라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저 신비스럽고 인구 많고 요즘 부상하는 나라 정도로 여겨졌던 인도가 2조4000억달러의 GDP를 가지고 있습니다. 1인당 경제규모는 우리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3배에 달하는 경제규모입니다. 멕시코의 경제규모도 우리보다 앞서더군요. 식량도 자급자족 못하고 석유도 한방울 나지 않고 기타 지하자원도 없이 열강들 틈에 끼어 언제 사라질지도 모를 그런 조그만 나라가 바로 우리 조국이었습니다.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도 이렇듯 경이로운 성장을 한 것은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우리 선배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 덕분에 지금의 경제력을 갖게 되었지만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반목하고 싸우는 가운데 도처에서 우리를 둘러싼 위협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AFTA가 발효되어 동남아 7개국이 단일경제블록화될 예정입니다. 미국과도 멀어지고 중국에 끼지도 못하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아프리카, 남미는 멀어서 안중에도 없는 듯합니다. 이렇게 자만하고 있다가 수출을 계속하는 것도 어렵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은 저만의 기우일까요.

과연 대한민국의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얼마 전 “한국은 외교관계에서 혼자 서있는 것 같다”는 주한독일대사의 기사를 보면서 정말이지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왜 다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한국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거죠?” 20년 전 일본 연수시절에 말레이시아의 한 연수생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니면 남이요, 경쟁의 대상입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벗어나 세계 2%의 경제규모를 만들기 위해 전쟁하듯 살아온 기성세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로 조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가 선진국과 추격해오는 개발도상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과연 세계인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전세계 2%의 경제력을 확보한 것만으로도 자만하고 싸우고 반목하는 정도의 그릇밖에는 안되는 것이지요? 98%의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신뢰 속에 리더가 되는 꿈을 꾸면 안되는 것인가요?

우리를 만나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벤처인들은 이 조국의 미래를 짊어질 첨병들입니다. 적어도 우리 민족이 압축성장을 통해 얻은 지금의 소중한 결과물을 미래와 세계에 접목시켜 진정으로 세계인의 친구가 되고, 또 그들의 리더가 되기를 꿈꿀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선구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미래의 주역이고 선구자인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조국은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화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세계 속에 신뢰받는 진정한 동반자로서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스런 자식들에게 꿈과 희망의 조국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10월 4일, 5일 벤처기업협회가 주관하는 가장 큰 행사인 'Venture Korea 2004' 와 'INKE총회' 가 개최됩니다.

이번 INKE총회에는 20여 개 지부 의장님들과 함께 많은 기업가와 투자가가 참석할 예정인데 특히 홍콩의 상공부차관, NASDAQ 부사장 등도 참석합니다.

그분들이 INKE총회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자신들이 투자할 수 있거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국내 벤처기업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열정과 기업가정신을 보고 싶어합니다. 친구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이 그들과 친구관계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대기업과도 지금까지 갑과 을의 관계를 벗어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INKE Member 여러분!

이번 행사를 계기로 벤처기업인들은 우리 민족의 첨병으로서 새롭게 태어났으면 합니다.

첫째, 많은 참여와 활동을 통해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주위를 변하게 하고 우리 민족을 변하게 하고 더 나아가 세계인들과 더불어 사는 진정한 친구, 대한민국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이제 수출과 수입이라는 단순한 거래를 벗어나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글로벌파트너들과 세계시장을 상대로, 다시 말해 2%의 시장이 아닌 100%의 시장을 목표로 전략을 짜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INKE를 통해 그러한 파트너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신뢰받는 친구가 되고 또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기회를 만들기 바랍니다.

INKE는 세계 속의 지식강국 대한민국이 되는 첨병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